

2016년 10월 6일,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, 김선희 조사.
신준희(여, 1930년생, 제주시 봉개동)

[조사자] 할머니 여기 도체비는 안 나낫수과?

[제보자] 도체빗불? 그런 말은 나….

[조사자] 도체빗불은 안 봐낫수과.

[제보자] 도체빗불은 봐나긴 헤연.

[조사자] 아이고, 도체빗불도 봐낫수과?

[제보자] 응. 나이, 그 역적수울 물 질례 아침 세벡이 저, 침침한 날인디 ?슬 땐디 침침한 날엔디. ?슬 때가 아니고 봄이로구나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물 질례 나가는디. 밤이 혼 네시건 웨믄 아니 혼 세시만 웨믄 그디 물을 강 두어 번 강, 멀어노난에 두어번 강 질어동 강 밥을 허주게. 애기 돌아놓고 밥허젠 헤 가믄 막 바빠, 바쁘난. 물을 질례 아침 세벡이 나아정 물을 질례 가단 보난, 전 웬당 알아지카? 웬당

[조사자] 예? 원당봉마씸?

[제보자] 신춘 조끗디.

[조사자] 예, 알아집니다.

[제보자] 그 웬당 넘은 딜로 무신 이만이 헌 초롱불, 초롱이 이만헌 게 벌랑벌랑 와가난, 아, 저건 요기 동섹이 할아버지 밧 시난에 밧디 무신 지들커 덮을 거 시난에 비 왈직허난에 덮으레 왔인가. 어우에 나가 요만이 간디 그냥 어염들에 바싹 기냥 파랑한 게 이만이 헌 게 벌랑벌랑 허난. 아파 나 모르겠다 그냥, 콩으로 니를 그냥 꽉 찔르난 피가 짹 난 거라.

[조사자] 예, 예.

[제보자] 게난 그 피가 나오난 엊어져 불언.

[조사자] 경 헤야 하는 거꽈? 도체빗불을 보면 영 피 내와야 뛰어?

[제보자] 피 내와야주게. 도체비는 사름 늘 피 나와 불민 엊어진댄.

[조사자] 아. 늘 피 나오민 엊어진댄 마씸?

[제보자] 응. 옛날 그런말 잊어낫어.

[조사자] 경 헹 일부러 피 내왓수과?

[제보자] 응. 낫굽으로 딱 깨물양 피가 나오니까 도체비 어느새라 간질 알양 어디사 가빈지 몰라.

[조사자] 아아.

[제보자] 탁 앞이까지 둘양 오당. 근디 그때도 경 모수와 베지도 안 헤고. 도체비다 허멍도. 아이고 딱 허게시리 니빨을 딱 그치난 그자 피가 픽허게 난. 거자 엊어져 불언. 게난 아이고 도체비구나. 집이 오란 아장 그 말 골아낫주게. 아이고 도체비 영 헹 피 나오난 엊어졌저게 골아낫주게. 나 잇당도 골아저. 어디 놀래 가난도. 나 경 헌 거는 봐나서. 파랑헌 게. 등알등알.

[조사자] 파랑한 불예?

[제보자] 그 진드르 벵디레 이 새미가랑더레여 영 소낭밧 그디 신다. 영영 와 가난 아, 동섹이 하르방이렌 헌 건 이디 살아난 하르방 그디 밧 시난에 그거 덮으레 왓구나. 초담은 경 생각을 헷인디. 어우에 그냥 그디 보딘디 와가. 아, 저거 도체비다 헤연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체빗불, 웬당, 원당봉, 벌랑벌랑, 사름 늘 피, 낫굽, 쁉, 등알등알, 진드르